

<참고>

“중앙은행 디지털화폐(CBDC)” 발행관련 파월 연준의장의 최근까지 견해

구분	주요 내용
의회보고 2021.2.23.~2.24일	<p>■ CBDC 도입 형태*</p> <p>* 연준이 CBDC를 직접 개발할 것인지? 이 경우 금융기관에 의해 중재되지 않고 개인과 기업들이 직접 보유하는 형태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 사항들을 결정하기 위해 기술 및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으며, 이를 위해 관련 정책당국, 다른 중앙은행들과 협의하고 있음. 연준이 첫 주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. CBDC가 금융포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또는 자금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
의회보고 2021.3.23~3.24일	<p>■ CBDC 도입 여부 및 견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검토단계) 현재 CBDC의 기술 및 설계 이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 - (발행형태) 완전한 익명성을 부여하는 형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(would not be viable) - (추진시기) 보안, 투명성 등을 고려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며 고려할 요인이 많으므로 시간을 두고 주의깊게 살필 것임
FOMC 기자간담회 2021.4.28일	<p>■ 중국의 CBDC 추진 등 글로벌 경쟁에 대한 견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글로벌 도입경쟁) 미국 달러가 글로벌 거래에서 통용되는 준비통화인 이유는 우리의 법, 민주주의, 경제 등 미국을 미국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 때문임. 다른 나라가 먼저 디지털화폐를 도입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은 여전히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달러를 이용하려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우려하지 않고 있음 - (중국 CBDC)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CBDC는 미국에서 통용될 통화가 아니며, 중국정부가 모든 지급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글로벌 경쟁의 문제라기보다는 중국 금융시스템 내의 문제와 더 관련됨 - (추진시기) 우리는 FedNow시스템 등 이미 고도로 발전된 지급결제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머지않아 모든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언제든지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임. 이런 환경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역할은 빨리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